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 宜 洛
編輯人：沈 載 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 賣 品 1996. 1. 3 登 錄 番 號 書 爾 拉 - 549 號

홈페이지 | www.csshim.or.kr



대중회 신임회장
沈宜洛

就 任 辭

綠陰芳草의 福된 季節
입니다.

먼저 우리 大宗會의 無窮한 發展과 全國 宗人 여러분의 家庭마다 幸福이 滿堂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4月 29日 成均館 儒林會館에서 開催한 우리 大宗會 第41次 定期總會에서 不肖 제가 會長으로 滿場一致로 推戴選任 되었습니다. 저는 1971년 우리 大宗會 創立때 부터 末席에서 나마 大宗會運營에 參與하여 副會長을 30餘年 連任하였으며 名譽會長도 歷任하였습니다. 通算 40年 만에 榮光스러운 會長 자리 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曷 瞻 感激과 感懷가 無量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全國 宗人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指導鞭撻해 주신 德分이라고 생각하며 感淚를 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不德하고 力量도 不足하여 歷代會長님의 獻身으로 盤石위에 올려놓으신 우리 大宗會를 健全하게 지켜 갈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俗談에 '堂狗 3年이면 吠風月'이라 는 말과 같이 지난 40年間的 經驗을 土臺로 하고 全國 宗人 여러분의 倍前의 사랑과 指導協助를 받으면서 우리 大宗會 定款에 依한 會長의 職責을 誠實하게 遂行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便에는 어려움도 豫想됩니다. 大宗會의 健全財政을 위한 一大刷新이 不可避한 狀態에 있음을 理解하시고 協助를 期待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중회는

1971年 創立以後 40年 동안에 많은 發展을 거듭하였으며 特히 崇祖의 物理的인 事業이라 할 수 있는 卽 5處 墓所의 淨化, 讚慶樓 萬歲樓등의 文化財의 重修復元 그리고 宗財의 保存등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崇祖를 위한 生産的인 事業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立身揚名하여 父母를 榮光스럽게 하는 것이 孝인인데 後孫의 發展을 돕는 事業도 崇祖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人類의 歷史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朝鮮朝 500年 동안 우리 先祖의 13政丞을 비롯한 많은 人才들이 國政의 中心에서 나라를 지키고 發展시켜 오신 것도 그 基礎는 英才教育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大宗會의 財政을 健全化, 效率化하여 우리 後孫의 英才育成을 위한 獎學財團의 設立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具體的인 立案이 되면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協助를 바라겠습니다. 就任人辭가 너무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微力이 오나 大宗會 發展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指導와 協助를 敬望합니다.

끝으로 全國 宗人 여러분의 健勝을 다시 한 번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年 4月 29日

新任會長 沈 宜 洛



대중회 회장
沈斗變

離 任 辭

또한 大宗會 發足 以後의 活動相을 整理하여 青松沈氏 大宗會 四十年 略史란 題號로 冊子를 發刊하였습니다.

宗人여러분 저는 이제 任期를 마치고 물러납니다만 앞으로 餘力이 있는 限 여러분들과 같이 宗事에 參與코자 하오니 從前과 같이 衷情어린 指導와 助言을 바랍니다.

그리고 宜洛 新任 會長任께서는 우리 門中에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初代, 二代 會長任의 最側近에서 三十餘星霜을 誠心을 다하여 補弼하여 오신 우리 宗會의 山 證人이 시기도 합니다.

이제 春秋와 無關하게 年富力強하신 會長任을 中心軸으로 하여 前會長任들의 功德을 盤石위에 올려놓는 課業에 우리 모두가 同參하여 주실 것을 懇曲히 當付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宗會의 隆盛과 宗賢諸位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2011年 4月 29日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斗變 謹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立夏를 몇일 앞두고 青松沈門의 家族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서 뵈게 되어 大端히 感謝합니다.

오늘 總會에 參席하고자 어제 上京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宅을 떠나 오시느라 受苦가 많으셨습니다.

宗人 여러분께서는 平素 宗事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계셔서 今年에도 五處山所 春享을 敬虔하고도 盛大하게 奉行할 수 있었습니다. 眞心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庚寅年에는 始祖山所 進入路邊에 聖澤 初代會長任의 功績碑와 明求 二代 會長任의 頌德碑를 建立하여 그분들의 功德을 더욱 欽慕하게 되었으며, 青松의 讚慶樓도 重修하고 그 一帶를 公園化하여 더욱 威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公 告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開催

二〇一一年度 安孝公(諱:溫)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日 時 : 二〇一一年 六月 六日 (月曜日)

午前 一〇時 - 端午節祀奉行

十一時 - 定期總會開催

나. 場 所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四〇一번지 (安孝公墓前 및 齋室)

(〇三一) 二五三一八〇六〇

(〇三一) 二五三一八〇四〇

다. 主要 內容 (附議案件)

一. 二〇一〇年度 決算(案) 承認의 件

二. 利益剩餘金處分(案) 承認의 件

三. 二〇一一年度 事業計劃(案) 承認의 件

四. 二〇一一年度 收支豫算(案) 承認의 件

五. 議決權 委任承認의 件

六. 其他 主要事項

라. 其他

全國 各地域에서 團體로 參與하실 境遇는 사전에 通報주시기 바랍니다.

二〇一一年 五月 日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會長 沈 相 德

2011年 第41回 定期總會 開催



▲ 청송심씨 제41회 정기총회 광경 (성균관 유림회관)

대중회 제41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9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319명의 일가분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되었다.

고문님과 지도위원님의 소개에 이어 종사업무에 공이 많은 종인들에 대하여 공로상(패)과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2010년도 업무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임원개선에서는 대중회장에 宜洛 명예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부회장 7명(庚周 相股 相郁 相和 贊求 完求 甲輔)은 전원 유임되었고, 감사 3명 중 2명(載冕 春植)은 유임되고 결원된 자리에는 載烈 전 문화이사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신임회장께서는 斗燮 전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번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10년도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 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기 임원



▲ 두섭 회장께서 재일 대중회 문화이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모습

개선은 2014년에 이루어진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종인들에게는 3월말일에 발간된 “청송심씨대중회 40년 약사”를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宜洛 회장님께서서는 부회장인 相和 부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집행부 상임이사에는 종무 : 鍾赫(유임), 재무 : 種福(유임), 문화 : 載緒(신임)로 위촉하였다.

功 勞 賞

文化理事 沈 載 烈

貴下는 大宗會 文化理事로 在職(1998~2011)하면서 宗報 編輯人의 責務를 다하였으며 大同世譜 刊行委員會 幹事로서 庚辰譜를 成功的으로 發刊하는데 中樞的인 役割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五處山所 位土를 踏査하여 位土臺帳을 整備하였으며 山所 淨化事業과 青松 讚慶會館 新築工事 等 現場監督 業務를 充實히 遂行하였고 大宗會 40年 略史 發刊業務를 主管함으로써 大宗會 發展에 寄與하신 功이 至大하였기에 이 賞을 드립니다.

2011年 4月 29日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斗 燮

功 勞 牌

沈 左 輔

貴下는 崇祖敦睦 精神이 透徹하여 驪州牧使公(諱:友正)派 宗中墓苑 造成에 獻身하였을뿐만 아니라 仁川宗會 總務를 多年間 맡아오면서 宗人間的 紐帶強化를 爲해 努力하였으며, 庚辰譜 發刊과 인터넷族譜 追加 登載作業의 校正業務를 擔當하여 大宗會의 業務處理에 寄與하신 功이 至大하였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2011年 4月 29日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斗 燮

感 謝 牌

沈 南 圭

貴下는 岳隱公(諱:元符)의 後裔로서 青松郡廳 文化觀光課 業務를 擔當하면서 始祖山所의 祭閣인 讚慶樓를 重修하고 그 一帶에 公園을 造成하여 우리 門中의 位相을 크게 提高하였으며, 曹溪宗과의 合意를 이끌어 大宗會의 宿願事業이었던 萬歲樓 附屬建物인 追慕齋를 復元하는데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感謝한 마음을 이 牌에 담아 드립니다.

2011年 4月 29日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斗 燮

종묘대제 봉행 (宗廟大祭 奉行) (5월 첫째 일요일 / 5월 1일)



▲ 正殿 : 아헌관 - 안효공중회 운영위원 敏玉



▲ 永寧殿 : 아헌관 - 공숙공중회 雄燮 회장

종묘대제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왕실의례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효를 근본으로 한 공경 사상을 바탕으로 생활하였으며, 또한 나라

를 다스리는 기반으로 삼았다. 조선조 역대 제왕과 왕비의 신위가 봉안되어있는 종묘에서 봉행되는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나라 제사 중 가장

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라 한다. 조선 시대의 종묘는 원래 正殿만을 지칭한 말이었으나 현재의 종묘는 正殿과 永寧殿 모두를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종묘대제는 세계인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 한국의 역사문화가 전달되어 그들에게 조선 유교문화에 담겨있는 역사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각 제관의 임무

- 초헌관 : 첫째 잔을 올리는 사람
- 아헌관 : 둘째 잔을 올리는 사람
- 종헌관 : 셋째잔을 올리는 사람
- 대 축 : 축문 읽는 사람
- 집 준 : 작에 술을 따르는 사람
- 찬 의 : 집사와 헌관을 인도하는 사람
- 집 레 :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 관세위 : 손씻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 찬 레 : 초헌관을 모시는 사람
- 천 조 : 익힌 고기를 받치는 사람

★參班員 : 相烈 相弘 洪燮 奉燮 光燮 載烈 載春 容圭 三圭 載緒 勳輔 仁輔(영동) 仁輔

青城伯墓所 春享 隨想記

2011年 4月 17日(陰 3月 15日)은 漣川郡 嶺山面 峨峯里 山 110番地 所在 四世祖 青城伯墓所 春享日이다. 辛卯年 春享은 青松의 始祖 文林郎公은 寒食에 二世祖 閣門祇侯公은 陰 3月 11日에 三世祖 靑華府院君은 陰 3月 13日에 奉行 하였으며, 陰 3月 14日에는 五世祖 安孝公 配位 三韓國夫人의 春享도 있었다.

享祀日의 氣溫도 아침에는 6℃이나 낮에는 19℃까지 上昇하여 조여름 같았다. 全國에서 오신 100余名의 宗人들과 함께 午前 11時부터 祭享을 嚴肅히 舉行하였다. 例年같으면 溫厚하신 明求會長님이 계셔서 墓域에 和氣가 넘었는데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때로는 獻

官도 하시고 때로는 小生에게도 勸誘하셨는데 벌써 안 계신지가 몇 해가 되었는가! 오늘따라 會長님 生前의 모습 이 그리워집니다.

이런 저런 想念에 잠겨있을 때 相和副會長님이 반가운 모습으로 오셔서 握手를 請하셨다. 副會長님은, 우리 宗會 草創期 어려운 때에 基礎를 닦아놓으시고 모든 宗人으로부터 推仰을 받고 계신 聖澤 初代會長님의 長子 이시다. 또한 春秋祭享의 執禮를 맡아오신 相稷 前 安孝公宗會 總務理事님도 제 곁을 떠나셨다.

그분은 대쪽같이 곧은 性品과 祭禮에 관한 該博한 知識을 가지시고 熱情으로 笏記를 읽기 시작하면 場內

는 삼시간에 肅然해진다. 特히 飲福禮가 끝날 때까지 參班員은 조용히 제자리에 서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호령이 내려져 혼쫓이 나곤 한 것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뒤를 이어 執禮를 맡으신 載玉 安孝公宗會 總務理事님도 清雅한 音聲과 能熟한 솜씨로 祭典을 進行하는 것을 보고 우리宗會의 洪福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大祝의 相直 南서울宗會長님은 예나 지금이나 宗事에 한결같이 熱誠의이시며 讀祝의 音律은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獨創性을 가지고 계시다.

끝으로 이번 祭享에 勞苦가 많으신 鍾赫 總務理事, 鍾福 財務理事, 載烈 文化理事, 載緒 文化部長님을 비롯하여 關係宗人 여러분에게도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年 4月 日

沈斗燮拜



심 갑 보
대중회 부회장

옳은 경영자의 길로 인도한 내 인생행로의 선장

나에게 큰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의 장인이자 삼익THK를 창업한 고 진우석(陳禹碩 : 1922~2010)회장이십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조업의 문외한으로 출발한 나에게 경영실무에 꼭 필요한 이론을 배우도록 고려대 경영대학원에 입학 시켰습니다. 이런 외부교육기관을 통해 얻은 생생한 경영 노하우를 통하여 나는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70년대 초에는 중소기업으로서 존치할 수 있었던 '수출의 길'을 개척했고 회계전산화

도 일찍부터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나에게 처음 맡긴 일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특관세(特關稅)환급 소원(訴願)업무와 특허관련 사건 등 당시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가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은 전적으로 나의 판단과 역량에 일임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경영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무엇보다도 정도경영(正道經營)을 몸소 실천하시으로써 삼익THK 경영반세기의 기업문화로 착근(着根) 되도록

지도해주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우리 회사가 전기밥솥, 밥통 같은 가전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경쟁업체들이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관행적으로 탈루하는 바람에 탈세를 하지 않고서는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때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면 생산을 포기하라”는 결연한 의지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전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CEO들은 처음 부딪히거나 난해한 문제로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여쭙어볼 수 있는 스승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행운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위기의 순간마다 실전에 투입시켜 자강불식(自強不息 : 쉬지 않고 노력함)

의 경영자로 키워주고 일하는 방법과 해답은 나 스스로 깨우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그릇'을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가 THK 창립 50주년에 임하여 영원한 멘토이신 당신의 추모사를 올려봅니다.

“당신은 내 인생행로의 선장이셨습니다. 몸소 걸어가신 바르고 정직한 길은 길을 밝혀준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마음의 별이 되어주신 당신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도 빛나주십시오. 늘 고개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심 갑 보

(삼익 THK 대표이사 부회장) 추모사

會者定離 / 去者必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만남의 因緣을 맺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好感과 情感을 느끼는 반면 만날수록 忌避하고 싶은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다. 가까이서 모신 대중회 前 斗燮會長님과 載烈文化理事님은 前者에 속하시는 분들이시다. 斗燮會長님은 國家公職의 幹部로서 오랫동안 在任 하셨습니다. 安孝公宗會 會長職을 弼임 하셨습니다. 孤高한 鶴의 姿態를 聯想하듯 高邁하시고 溫和하신 선비의 人性을 지니셨으며 저에게 가끔씩 人生事에 대해 助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모두 탈무드의 智慧의 말씀 같아서 아름다운 白舍花의 香氣를

느끼곤 하였다. 一家間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하시면서 몸소 謙遜을 실천하시고 대중회를 人和로 이끌어주신 훌륭하신분으로 내 마음속깊이 思慕하며 나의 Role Model 이 되시는 沈門의 어른이시다. 載烈文化理事님은 항상 嚴格하시며 宗事에 불같은 熱情을 갖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꼭 해 내시고야 마는 責任感이 透徹하시고 推進力이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으로 庚辰譜發刊과 斗燮會長님께서 提案하신 우리 '大宗會40年 略史' 編纂委員長님으로서 完璧하게 任務를 遂行하셨으며 뿌리고육을 主管하시어 尊祖收族의 精神을 涵養振興케 하시는 역할에 크게 기여하셨다. 지난 4月末

로 任期를 마치시고 이제 斗燮會長님은 名譽會長님으로, 載烈文化理事님은 監事님으로 다시 嵬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또한 高位公職의 長으로 오랫동안 國家發展에 貢獻하셨으며 大宗會 發展에 半平生을 보내신 우리 沈門의 큰 어른이신 宜洛 名譽會長님을 新任會長님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 沈門 모두의 洪福이라 하겠다.

新任 宜洛會長님의 著書 '나의 回想錄'에서 “은의(恩義)를 널리 베풀라, 사람이 또 어디에서 만나지 아니하라,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할 길이 없느니라”라고 言及하신 深奧한 眞理의 말씀이 떠오른다. '會者定離 / 去者必返'이라 하지 않았던가! 만나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人生事 일

인데, 있을 때 잘하고 헤어질 때 아름답게 보내며 기쁨으로 또다시 만나고 ...

恩義를 베풀며 一家間에는 和睦하며 祝杯의 乾杯辭는 항상 '언제나 우리는 하나다'로 一家間에 一致團合하여 名門家 子孫으로서 先代祖님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會者定離 / 去者必返'를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文化理事의 重責을 補任받아 宗事業務에 臨하게 되어 기쁜 맘과 自矜心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全國 일가分의 期待에 잘 副應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낀다. 아무쪼록 全國 일가分들께 많은 指導鞭撻을 부탁드리오며 拙筆을 즐기고자한다.

2011년 5월 일

(新任) 文化理事 沈 載 緒

대동세보(경진보)와 수권속편 할인 보급안내



대중회에서 발간한 大同世譜(庚辰譜)와 首卷續編을 대폭할인하여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자 하오니 一家여러분께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 | | | |
|------|-------|-------------|---------|
| 파 명 | 이 름 | 집 전 화 | 핸 드 폰 |
| 주 소 | | 우편번호 | |
| 송금일자 | 송 금 인 | 금 액 | 송 금 은 행 |
| | | ()은행 ()지점 | |

| 구 분 | 현재 가격 | 할인 가격 | 신청부수 |
|-----------------|----------|----------|------|
| 대동세보 경진보 1질 | 220,000원 | 150,000원 | ()질 |
| 수권속편 1질 | 100,000원 | 50,000원 | ()질 |
| 대동세보 수권 1권 | 40,000원 | 20,000원 | ()권 |
| 수권속편 1권 | 50,000원 | 20,000원 | ()권 |
|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1권 | 30,000원 | 20,000원 | ()권 |
| 중보축쇄판 1권 | 20,000원 | 10,000원 | ()권 |
| 제향홀기(휴대용) | 3,000원 | 3,000원 | ()권 |
| 중사수첩(휴대용) | 3,000원 | 3,000원 | ()권 |
| 뱃지 1개 | 1,000원 | 1,000원 | ()개 |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청송심씨대중회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찬경루, 운봉관 사적공원 명칭 소헌공원(昭憲公園)으로 확정



▲ 소헌공원 전경
찬경루 : 경북도 문화재 183호 / 운봉관 : 경북도 문화재 제252호

심문의 관향(貫鄕), 청송군 청송읍에 소재한 찬경루(讚慶樓)와 운봉관(雲鳳館)의 공원명칭이 우리 심문의 자손이신 세종대왕비[5세조 안효공(煥)의 長女]의 시호(諡號)인 '소헌(昭憲)'을 따서 소헌공원(昭憲公園)으로 지난 4월 선정되었다.

이번 公園名 公募에서 청송경찰서장 심덕보 일가 외 2명이 제안한 것이 채택되었으며 공원명이 소헌공원(昭憲公園)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沈門의 크나 큰 榮光이라 하겠다. 청송군청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餘年間 찬경루와 운봉관 복원을 위해 75억 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전국 일가분께서도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靑松의 始祖墓所 參拜 後에 소헌왕후의 孝心이 담긴 '소헌공원'과 우리 沈門 집성촌 마을인 '덕천마을'과 景義齋 內的 四世조 악은공(煥:元符) 祭壇도 둘러 우리 조상님들의 업을 본받고 명문가 자손으로서의 自矜心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왕비 소헌왕후 심씨-③ (王妃 昭憲王后 沈氏)

아버지 세종과는 달리 문종은 그다지 여색을 좋아하지 않아 어린 외아들 단종만 바라보며 혼자 지냈다.

세종이 비록 여색을 좋아하긴 했으나 찬란한 업적들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부인 심씨의 내조가 컸음을 세종도 잘 알고 있었다. 1436년(세종18) 10월, 세종은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 부인 심씨에 대해 칭송했다.

“우리 조정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 잡혔고, 내 몸에 미쳐서도 증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증궁은 성품이 매우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부덕(婦德)을 갖추었던 심씨에 대해 세종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와 숙부를 잃게 되었고, 어머니는 관노비로 전락되는 비극을 겪었던 심씨, 그녀의 생은 아들의 후궁들 문제까지 속을 꿰뚫던 한평생이었다.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의 파란 많은 일생을 보낸 소헌왕후 심씨는 1444년(세종26)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이듬해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平原大君)마저 스무 살 안팎의 나이로 요절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1422년 시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여야 어머니 안씨를 관노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심씨로서는 그나마 친정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심씨는 두 아들마저 잇따라 세상을 버려져 몸져누워 있다가 결국 1년만인 1446년(세종28) 3월 둘째 아들 수양대군(세조)의 잠저(潛邸)에서 춘추 52세로 승하하였다.

세종도 심씨 별세 4년 후인 1450년 2월 여덟째 아들 영웅대군의 별궁에서 보령 54세로 승하하였다.

능(陵)은 현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한 영릉(英陵)에 합장되어 누워 있다.

평생의 한을 불교를 통해 씻어보려 했던 심씨, 그녀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세종은 궁궐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세웠다.

첫아들 문종도 임금이 된 후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았던 어머니 심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외할아버지 심온을 신원(伸冤:원통한 일을 푸는 것)하여 드렸다.

심씨가 아무런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행은 당했던 것은, 조선이 족벌 왕조 국가 구축 과정에서 권력 무게의 핵(核:중심)은 분산 또는 분배되어질 수 없다는 태종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세종 즉위 이전부터 태종은 외척 세력을 잔혹하게 제거하고 공신들도 대대적으로 숙청하여 안정된 통치 기반을 세종에게 넘겨주었다.

왕권을 계승한 세종은 많은 여성을 편력하였다라는 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만 여섯 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무려 22명의 자녀를 두었던 대단한 호색가였다.

조선의 역대 왕 중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성군 세종대왕이 있기까지 이면에는 한과 눈물로 한 세상을 보낸 왕비 소헌왕후 심씨의 내조가 있었던 것이다.

세종이 받았던 화려한 조명(spot light) 뒤에는 한 여인의 슬픔과 인내와 희생이 반겨 주고 있었던 것이다.

沈영감 심민섭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各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會旗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大總會에서 一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會旗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宗會名 | 靑松沈氏 | 宗會 |
| 住 所 | | |
| 電話番號 | 宅: - - | |
| | 휴대폰: - - | |
| 제작금액 |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 |

靑松沈氏大總會(02-2267-7857)

| 軍資鑑正公派宗會 任員名單 | | | |
|---------------------------|---------------------------|---------------------------|---------------------------|
| 理 總 監 | 副 會 長 | 會 務 事 | 顧 問 |
| 事 務 事 | 會 務 事 | 會 務 事 | 會 務 事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함열 제2세조 영모재 3문 현판



閣 (각) 齋 (재) 堂 (당) 南 (남)

| 慶南 固城宗會 任員名單 | | | |
|---------------------------|---------------------------|---------------------------|---------------------------|
| 理 總 監 | 副 會 長 | 會 務 事 | 顧 問 |
| 事 務 事 | 會 務 事 | 會 務 事 | 會 務 事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 財 政 策 劃 會 議 文 書 撰 寫 會 議 |

宗 事 消 息

始祖 文林郎公(휘:洪孚) 春享奉行

4월 6일(寒食)



始祖
初獻:晶求
亞獻:相郁 德輔
終獻:載龍 宜生
執禮:能光 大祝:琬澤
執事:田澤 弘燮 相國 相守 幸燮 宗澤
▶ 參祀員: 97名
▷ 中臺山所 春享奉行
獻官:相郁(鐵原宗會 顧問)

三世祖 青華府院君(휘:龍) 春享奉行

4월 15일(음 3월 13일)



青華府院君
初獻:晶求
亞獻:相直
終獻:載龍
執禮:載玉
大祝:洪燮
執事:相旭 虎燮
▶ 參祀員: 87명
配位
敏燮
英求
政燮
洪燮
光澤

二世祖 閣門祇侯公(휘:淵) 春享奉行

4월 13일(음 3월 11일)



閣門祇侯公
初獻:相德
亞獻:玄根
終獻:憲燮
執禮:洪燮 大祝:相直
執事:載日 英術 仁求 昌燮 斗燮 尙道 彥村 正秀 載緒
▶ 參祀員: 185명 버스 2대(대전 50명, 예전 28명)
配位
哲植
大輔

四世祖 青城伯(휘:德符) 春享奉行

4월 17일(음 3월 15일)



青城伯
初獻:斗燮
亞獻:浩燮
終獻:雄燮
執禮:載玉
大祝:相直
執事:載澈 昌輔
▶ 參祀員: 100명
配位
相德
康燮
魯鎮
載玉
相華

二世祖 閣門祇侯公 世居趾 安分祠 享祀奉行

(음력 3월 3일)



初獻:明澤 亞獻:洪燮 終獻:英求
執禮:東燮 大祝:採鉄
▶ 參祀員: 대종회 載烈 洪燮 愚夏 種福 外 宗員 100여명

青城伯 初配位(淸州宋氏) 春享奉行

4월 19일(음 3월 17일)



淸州宋氏
初獻:敏燮
亞獻:揆璨
終獻:光輔
執禮:相昊
大祝:相直
執事:彥村 相中
▶ 參祀員: 45명
都摠制公
相德
洪燮
尙道
相昊
相直

四世祖 岳隱公(휘:元符) 春享奉行

4월 27일(음 3월 25일)



岳隱公
初獻:榮燮
亞獻:相七 載烈
終獻:進澤 宇永
執禮:相九
大祝:相國
執事:田澤 相三 相燾 相國 弘燮 遠燮 壽哲
▶ 參祀員: 120名
令同正公
德輔
寅澤 種福
洙鍾 義用
石村公
華燮
相坤 廣燮
相睦 相學

世宗大王 忌辰祭 奉行

4월 8일



亞獻官: 載春(安孝公宗會 運營委員)
▶ 參祀員: 鍾赫 洪燮 奉燮 愚夏 外

昭憲王后 忌辰祭 奉行

4월 28일



亞獻官: 玄根(安孝公宗會 運營委員)
▶ 參祀員: 載緒 奉燮 雄燮 三圭. 安孝公宗會(버스 1대)

仁順王后 忌辰祭 奉行

4월 24일



亞獻官: 胤燮(金浦宗會長)
▶ 參祀員: 相弘 相憲 相慶 洪燮 昌燮 德燮 康燮 載澈 三圭 載緒 載滿 勳輔 愚夏 석보 允輔 元輔 左輔 仁輔 19名

端懿王后 忌辰祭 奉行

3월 27일(3월 넷째 일요일)



亞獻官：相德(安孝公宗會 會長)
▶ 參祀員：相弘 相厚 奉燮 正燮 載烈 容圭 三圭 載德 載澈 載緒 左輔 仁輔 13名

淑容沈氏 忌辰祭 奉行

4월 17일(4월 셋째 일요일)



亞獻官：相弘(安孝公宗會 財務理事)
▶ 參祀員：載烈 容圭 百燮

三韓國大夫人(順興 安氏) 春享奉行

4월 16일(음 3월 14일)



初獻：相德 亞獻：彦瑒 終獻：雄燮
執禮：載玉 大祝：相弘 執事：相玉 虎燮
▶ 參祀員：37명

六世祖 良惠公(휘:石雋) 春享奉行

4월 22일(음 3월 20일)



良惠公兩位 滄州公兩位
初獻：晶求 榮燮
亞獻：相和 載昊
終獻：洪燮 愚成
執禮：載求 大祝：相華 執事：鍾赫 昌輔
▶ 獻誠金
滄州公 後孫 500,000 贊求 副會長 100,000
相和 大宗會副會長 100,000

七世祖 忘世亭公(휘:璿) 春享奉行

4월 25일(음 3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初獻：晶求 完求
亞獻：英求 春植
終獻：忠植 光植
執禮：載求 大祝：相直 執事：鍾赫 昌輔
▶ 獻誠金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完求 顧問 200,000
贊求 副會長 100,000

11世祖 宣武功臣(휘:友信) 春享奉行

4월 2일(음 3월 10일)



初獻：載龍 亞獻：載源 終獻：相芙
執禮：行燮 大祝：雄燮 執事：漢泳 載準 松燮 龍植

영의정 만사공(휘:之源) 며느리 출토복식 KBS뉴스 방영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이란 주제로 경기명가 출토복식 명품전 특별 전시회를 2011년 4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가졌습니다.

4월 8일 개관식에는 출토복식을 박물관에 기증한 명문가의 후손대표와 한국복식과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전시되고 있는 의복은 대부분이 350년이 넘게 매장되었다가 출토된 복식으로 우리나라의 고유전통의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특히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만사공 심지원의 며느리 성산이씨 묘소에서 출토된 유물은 실물이 발견된 첫 사례여서 KBS1 TV에서 4월 12일 오후 7시 KBS 뉴스 네트워크에서 방영하게 되었다.

〈앵커 보도내용〉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희귀한 의복이 처음으로 대거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350년 넘게 땅속에 묻혔다가 빛을 본 매장품인데 전통의상 연구를 위한 학술적인 가치가 큼니다.

(임명규 리포터) 부부의 행복을 상징하는 한 쌍의 새와 꽃무

늬가 수놓인 비단치마, 치마 6쪽에 한 뼘 한 뼘 손으로 수를 놓아 밑단을 장식하였습니다. 340년 만에 빛을 본 이 치마는 조선 효종때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며느리 성산이씨의 화조문 자수 스란치마입니다.

호랑이와 표범이 용맹을 뽐내는 듯한 모습의 흥배는 무관 1품의 관복에 붙였던 것으로 문헌과 초상화 외에는 실물로는 유일합니다. 또 수정재질의 가지 모양 노리개와 중간에 보석을 끼울 수 있게 만든 독특한 가락지도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이란 주제에서 의 마지막 치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3백여년전 선인들이 남긴 복식유물 70여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만사공 10대손 심재구 인터뷰) 문중 사람들도 모두 놀랐고 이걸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보관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에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자수치마” 실물이 발견된 것은 첫 사례입니다. 봉황무늬가 선명한 왕실 예복, 옷감을 짜는 동시에 금실로 무늬를 넣은 직금 스란치마로 봉황무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유물입니다.

(정미숙 이학박사 인터뷰) 지금 기술로는 이렇게 옷감을 짜는게 재현이 안돼요.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직접 손으로 짠 것처럼 두드러진게 안 나와요.



KBS뉴스 네트워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인수부윤공파 총무 심재구

『靑報會』 동정

경인년 시산제 거행

청보산악회는 3월 4일 11명의 회원이 아차산 3보루에 모여 좋은 장소를 택하여 신묘년 시산제를 지냈다. 제물은 전회장 洪燮님이 준비를 해주었으며, 相華 신임회장께서 헌작을 하고 洪燮 전회장이 祝을 낭독하였으며, 모든 회원들이 금년 한 해도 무사한 산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일가들간에 돈독한 정을 쌓아가자고 다짐하였다. 시산제를 지낸 후 회원들은 돼지머리에 꽂힌 두툼한 돈을 헤아려보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서 정상에 올라가 눈앞에 펼쳐진 서울 시내 전경과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줄인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아!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로다”를 연발하였다. 중곡동 방향으로 하산한 후 유명한 오리전 문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잔을 높이 들고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면서 회원들의 건강과 무사한 산행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였다.



청보회 회원들이 相華 회장을 비롯해 다같이 참석해 아차산에서 시산제를 지내는 모습



대중회 이사
沈載德

沈載德 理事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제24대 총재 취임

안동의 대덕산업 대표 심재덕 종인이 2011년 4월 16일 경주시 황성동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연차대회에서 제24대

총재에 취임하였다.

심재덕 총재는 '공경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봉사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그동안 실시해온 장학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임기 동안 봉사재단을 설립해 봉사활동도 적극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점사업으로는 조직의 활성화, 투명한 지구운영, 홍보 및 라이오니즘 확산, 지도력 함양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심총재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동네 굶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다"면서 "남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심총재는 인수부윤공과 과천현감공의 넷째 아드님이신 죽서공(휘 : 宗直)의 후손으로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안동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오다 지난 1989년 10월 안동라이온스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라이온스

현재 국제라이온스 가입국가는 206개국에 4만6천46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35만8천153명에 이른다. 한국연합회는 3개 복합지구에서 지구 수는 20개 지구로 2천93개 클럽에 회원 8만7천99명이 활동하고 있다.

356복합지구는 5개 지구에 631개의 클럽에서 2만7천49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56-E(경북)지구는 107개 클럽에서 회원 5천647명이 활동하고 있다.

▶ 라이온스 윤리 강령

1.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2. 부정적인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

공을 기도한다.

3.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4.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5.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6.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8.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 대덕산업

대덕산업은 항상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식생 블록제품 및 콘크리트 벤치플륨관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건설 자재 생산 업체이다.

杜山亭 誠金에 感謝

청송심씨 제2세조(諱 淵)를 모신 두산정 안분사 모금운동에 많은 일가들이 동참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며 선조를 섬기는 모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산정 모금운동은 6월 말에 마감할 계획이며 성금을 내어주시는 일가들의 정성은 돌에 새겨 자손만대로 보존토록 할 것입니다.

◎ 상범(창원) : 5,000,000원 임수(부산) : 500,000원

◎ 300,000원

지성주사공과(전남 장성), 안천회(부산), 상철(부산)

◎ 200,000원

울산 내금위종회 (창원) 덕섭 재문 (부산) 명수 (합천) 춘석 의식 인수

◎ 100,000원

(합천) : 병찬 재국 봉환 재익 창기 윤갑 영진 술진 영진 중수 재일 봉진 재상 경수 영수 대용 상윤 근상 대희 방섭 상문 현수 윤수 창수 판식 성수 영섭 재현

(산청) : 공섭 창섭 윤섭 규석 길수

(서울) : 상운 태섭 종섭

(창원) : 상태 상만 상욱 명섭 재섭 준조

(진주) : 종섭 재수 현보 성진

(고성) : 진규 (부산) : 기수

(청송) : 의규 명택 근택 (울산) : 수보 수근

(기타) : 임섭 한섭

◎ 헌성금 접수처

농협 : 356-0301-8020-33 예금주 심재화



승진



沈揆先 : 동아일보 이사대우 임명 (편집국장 겸직) 揆先 일가분은 대중회 재일감사님의 長子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임중 2011년 3월 17일부로 이사대우로 승진하였습니다.

의학박사 취득

光州송암종회(금당산종회) 和燮님의 長男 沈斗善(35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2011년 2월 25일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의학박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합격



沈旻圭(曉窓公派 成來副會長 孫子) 君이 LG연구소(2011년 3월 10일)에 수석합격 하였습니다.

제향성금(春享)

▶始祖 文林郎公

都摠制公宗會 200,000

仁壽府尹公宗會 500,000

盈德宗親會 200,000

相和 副會長 100,000

載德 青松警察署長 300,000

▶二世祖 閻文祗侯公

都摠制公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全北 青松會 100,000

大田.忠南地區宗會 100,000

醴泉宗會 100,000

▶三世祖 青華府院君

都摠制公宗會 100,000

仁壽府尹公宗會 300,000

安孝公宗會 300,000

內禁衛公宗會 200,000

相汶 信川公宗會長 100,000

▶四世祖 青城伯

都摠制公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龍仁宗會 200,000

相和 副會長 100,000

▶四世祖 青城伯 初配位 淸州宋氏

都摠制公宗會 200,000

安孝公宗會 300,000

相和 副會長 100,000

규만 인수부윤공 종인 100,000

宣武功臣派宗會 任員改選

- | | |
|---------|-------------|
| 會 長 | 觀燮 |
| 副 會 長 | 叡燮 相坤 |
| 監 事 | 相萬 |
| 總 務 理 事 | 行燮 |
| 財 務 理 事 | 載馨 |
| 理 事 | 利燮 龍植 載元 載圭 |
| 理 事 | 載誠 南燮 俊燮 載準 |

正郎公派宗會 任員名單

- | | |
|---------|----------------|
| 顧 問 | 國鎮 龍燮 |
| 副 會 長 | 慶燮 義燮 貴燮 舜輔 炆燮 |
| 總 務 理 事 | 載成 載云 吉燮 秀燮 相守 |
| 監 事 | 相悅 相萬 光燮 相杰 相鎮 |
| 理 事 | 泰燮 明燮 光燮 相燮 相瑄 |
| 理 事 | 允澤 揆植 載吉 勝南 揆瑄 |
| 理 事 | 元燮 載云 載熙 載成 光燮 |
| 理 事 | 興燮 順贊 性奎 찬燮 |

靖夷公派府使公宗會 任員名單

- | | |
|---------|----------------|
| 顧 問 | 려택 태섭 |
| 副 會 長 | 영섭 재문 재륜 |
| 總 務 理 事 | 인보 |
| 財 務 理 事 | 재근 |
| 監 事 | 정진 재운 |
| 理 事 | 명섭 찬섭 재국 재돈 재홍 |
| 理 事 | 형진 영보 영근 |

